

# 어학연수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한*정
파견국가	CANADA	파견도시	VANCOUVER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파견기간	1학기
귀국여부	2016년 1월 11일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걸어서 30분 버스타고 10분 정도 걸립니다. 저희 홈스테이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합니다. 또한 LANGARA STATION 과 가까운 거리에 있고 버스도 많아서 통학에 어려움은 없습니다.</p> <p>규모 및 시설: 규모도 적당하고 시설도 좋습니다. 수업교실 좋습니다. 도서관도 서적도 많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넓고 많아서 좋습니다. 카페테리아는 다양한 나라의 음식과 카페가 있어서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생시설도 깨끗하고 좋습니다.</p> <p>전체적인 분위기: 전체적으로 모든것이 쾌적하고 편리합니다. 아무 불편함 없이 학교시설을 이용했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저는 LEAP3,4를 수강했습니다. 우선 SPEAKING 은 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늘렸으며 수업시간에는 주로 READIGN, WRITING에 조금더 비중을 둡니다. 특히 WRITING이 취약한 저였기에 좋은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LISTEING 또한 공부 할 수 있지만 사실 캐나다인 친구들과 이야기 하기에는 부족한 양 입니다. 따로 이 부분은 공부했습니다.</p> <p>수업방법: 수업 방식은 2명의 선생님이 5일간 스케줄을 짜셔서 번갈아가면서 진행합니다. 숙제를 기반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숙제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일주일에 2~3 번 정도는 assesment 를 봅니다. 전반적인 모든 영어 실력을 다루어주지만 특히 wrting essay에 초점을 맞춥니다.</p> <p>강사: 선생님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열정이 가득하시고 수업 내용 외에도 생활 영어나 많은 부분들을 함께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주저 않고 물어 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며 영어에 지치지 않게 재밌게 수업을 이끌어 주셨습니다.</p> <p>과제: 과제를 해가지 않으면 수업이 진행이 아예 안됩니다. 그리고 과제를</p>

	<p>해야지 실력향상에 확실한 도움이 됩니다.</p>
<p>프로그램 운영</p>	<p>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저 같은 경우는 <i>i-cafe i-chat</i>이라고 해서 국제 학생들과 함께 만나서 놀고 이야기 할 수 있는 활동 등에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더욱 다양한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수업 외에 더 많은 speaking listening 을 늘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친구들을 만나 지금 까지도 잘 연락하고 있습니다.</p> <p>담당부서: <i>international office</i> (상담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p>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p>날씨</p>	<p>겨울에는 비가 정말 많이 자주 옵니다. 우산이 반듯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과 비슷하게 춥습니다. 장화와 우산, 우비 등을 챙기는 것이 현명합니다.</p>
<p>안전</p>	<p>캐나다는 정말 안전합니다. Down town에 Hasting street? 인가 정확한 street 기억이 안나지만 그 한 거리는 노숙자와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거리만 빼면 안전합니다. 대중교통에서도 대중교통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 안전하며 downtown에 노숙자들이 조금 있다는 것 빼고는 괜찮습니다. 대체적으로 정말 안전합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 o) 외부 숙소( ) 기타( )</p> <p>저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홈스테이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집은 정말 좋았고 모든 음식 걱정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처럼 정말 잘해주셔서 향수병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같은 기독교를 믿고 있어 같이 교회에도 다니고 정말 좋았습니다. 집에서 파티도 자주했고 같이 음식과 쿠키 파티 준비 등 정말 많은 캐나다인 문화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와 홈스테이를 통해 canadian 사람들은 많이 알고 친하게 되었습니다. 홈스테이를 통해 영어 실력이 정말 많이 향상됐고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으며 많은 값진것을 배웠습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 ) 홈스테이 ( o)</p> <p>외부식당 ( o) 직접 요리 ( ) 기타 ( )</p> <p>주로 아침은 먹지 않았고 점심은 홈스테이에서 도시락을 싸와서 cafeteria에서 친구들과 먹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홈스테이 식구들과 같이 먹거나 외부활동하는 단체에서 같이 먹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며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캐나다는 좋은 것이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살아서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통학은 버스편이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버스타고 다니거나 운동을 할 겸해서 걸어다녔습니다. 시내교통은 교통비가 한국보다 조금 비싸서 그렇지 정말 편리하고 역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주로 버스와 sky trian이라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합니다. monthly pass를 사거나 일회용 티켓을 사면 됩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20 만원	한국>캐나다
Fees	순천향대학교 등록금 380만원	등록금
보험료	저는 따로 제 담당 제무사님을 통해 여행자 메르츠보험을 들었습니다. 비용은 25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숙소	290만원 정도	홈스테이비용
식비,용돈	120만원 정도	식비, 용돈, 여행비용 등
교통비	30만원	버스,지하철
책값		
기타1		
기타2		
기타3		
합계	96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미리 영어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도 미리 영어 공부를 하고 가니 그 실력이 작아보이지만 그 기본 바탕에 가속도가 붙어 훨씬더 영어를 빨리 늘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학교내 동아리를 저는 미리 알아봐 실제로 빠르게 가입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동아리 상황도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해당국가의 어디가 여행가면 좋은지를 미리 알아보고 꼭 가고 싶은 곳을 몇개 선정해 가는 것만으로도 크게 도움이되고 저는 실제로 다 다녀왔습니다. 확실히 이루고 싶은 목표를 3-4개 정도 꼭 가지고 가서 하루 하루 그것을 생각하면서 생활한다면 반드시 다 이룰 것입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3개월 반이라는 시간은 정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영어를 늘리고 많은 것을 즐기기에 부족한 시간이라 했지만 저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1달동안은 캐나다인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 말을 별로 하지 않았는데도 머리가 아파 두통약을 달고 살곤 했습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 마다 캐나다인 coastal church를 갔습니다. 영어 설교를 듣고 영어로 저의 의견을 말하는 시간을 갖으면서 listening speaking 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만나 캐나다인 사람들과 다른 국제 사람들과 친해져 파티도 하고 마지막에는 farewell party도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꾸준히 연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주로 수업이 끝나면 캐나다인 친구들, international 친구들과 식당이나 카페 페스티벌 같은 곳에 가면서 문화를 즐기고 함께 이야기를 하며 다양한 것도 체험하고 영어 실력도 늘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좋은 캐나다인 친구, 언니들을 만나 지금까지도 연락을 잘하고 있으며 1월에 저희 한국집에 놀러올 예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다 반친구들이 정말 좋아서 많이 친구들집에서 파티도 할 수 있었습니다. 목요일 에는 학교에 있는 club활동을 했습니다. international 친구들이 있는 곳이라 더욱더 많은 국가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다큐멘터리를 찍어보고 싶은 저에게 그 친구들과의 대화시간은 세계의 문화를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었습니다. 또한 그 club과 연계 되어 있는 교회에서 homeless volunteer를 한달에 한번씩하며 homeless들을 도우며 함께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었으며 저의 꿈에 좋은 신념을 심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금요일에는 주로 hiking 이나 놀이 공원 그리고 주로 파티를 하면서 즐겼고 그리고 나서는 한인교회를 가 예배를 들이며 일명 불금을 잘 즐겼습니다. 토요일은 먼 자연 경관들을 보러 다니며 저의 취미인 사진을 찍거나 팀과제가 있으면 했습니다. 일요일은 canadian 교회와 한인 교회를 섬기며 그곳에서도 canadian교회의 파티 문화와 camp에 참여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 저는 캐나다에서 내놓으라 하는 rocky mountain 외 많은 자연경관을 촬영하며 저의 비전을 자연 다큐에 도움이 많이 되었고 또한 세계를 무대로한 휴먼 다큐를 찍고 싶은 꿈에 많은 다 국적의 사람들과 친분을 가질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 중국, 캐나다, 미국 친구들은 평생 갈 우정을 만들며 이미 내년 1,2월에 한국에 올 비행기도 마련해 놓은 친구들도 있어 지금 같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 홈스테이 생활, club활동과 교회 활동 등을 통해서 저는 정말 짧은 시간 많은 것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영어 실력 또한 놀랍게 향상되서 캐나다인 친구들과 막힘 없는 대화를 합니다. 하지만 듣기는 역시 어려운지라 가끔은 힘들지만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짧다면 짧은 이시간 어떤 마음 가짐으로 보내는냐에 따라서 결과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러니 짧다고 생각하지말고 충분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독하게 한다면 이기간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전 5가지의 목표를 세웠고 지금 그 목표는 다 성취되었습니다. 저는 향후 한국에 돌아가면 우선 speaking은 한국의 외국인 카페나 제가 섬기는 교회의 영어예배를 통해 친구들을 만나 실력을 유지하며 캐나다에서 알고 지낸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실력을 유지 할 것입니다. listening 은 영화를 dictation하고 시청하면서 실력을 유지해 나갈 것이며 reading은 뉴스와 책으로 writing은 매일 써오던 일기로

영어 실력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인 친구들을 만남으로써 이제 앞으로 해외에 나갈 기회가 더 많아졌고 그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기간을 통해 더욱더 자신감이 생겼고 정말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에게 이 시간은 저의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